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4-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제 38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제 38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 부이
- 07 /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기상정보에 대해
- 09 /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2024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0 / 2025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1 / 2025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7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금상 '보발재의 겨울(이상운)'



서비스

39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0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임나영(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남민우(관측과), 박동영(관측과), 박민규(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상용(예보과), 박성진(관측과), 박형진(예보과), 백승우(예보과)

서희진(예보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이지훈(기후서비스과), 이재영(예보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최경연(예보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 부이

다양한 해양관측장비,
대한민국의 바다를
면밀히 감시

오랜 시간 머물던 여름철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잠시 머물더니, 어느새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겨울이 성큼 왔다. 고개를 들면 겨울 특유의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매서운 바람은 얼굴과 손끝에 차가운 기운을 남긴다. 그런데 이 세찬 겨울바람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동해, 서해, 남해에서 모두 양식업이 발달했다. 수온과 바람 등 기상변화는 어민의 안전과 양식장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겨울엔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고가 높아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이에 겨울바람과 같은 해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을 지키고자, 다양한 해양관측장비가 대한민국의 바다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그중 바다 위에 떠서 현장을 직접 관측하는 장비는 ‘부이’이다.

부이는 크게 해양기상부이, 파고 부이, 연안 부이로 나뉜다.

해양기상부이는 먼바다에서 해양관측을 담당하는 장비로,海面 상태와 수온, 기압, 기온, 풍향·풍속, 시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파고 부이는 주로 연안에 가까운 앞바다에서 파고와 수온을 중심으로 관측하며, 해양기상부이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조가 간단하다. 마지막으로 연안 부이는 파고 부이보다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며, 기온, 풍향, 풍속, 기압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해양 예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바다에 설치된 해양기상부이는 3m, 6m, 10m의 크기로 분류되며, 크기마다 다양한 장비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서해를 거쳐 접근하는 강한 저기압 등 위험기상을 먼바다에서 조기에 탐지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예보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앞바다에 설치된 파고 부이는 0.7m의 작은 부이로, 해양기상부이 설치가 어려운 연안에서 해면 상태를 관측한다. 파고와 수온 정보 등 어업과 연안 활동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상세한 관측이 어렵고 잦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청은 보다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고 안전한 연안 부이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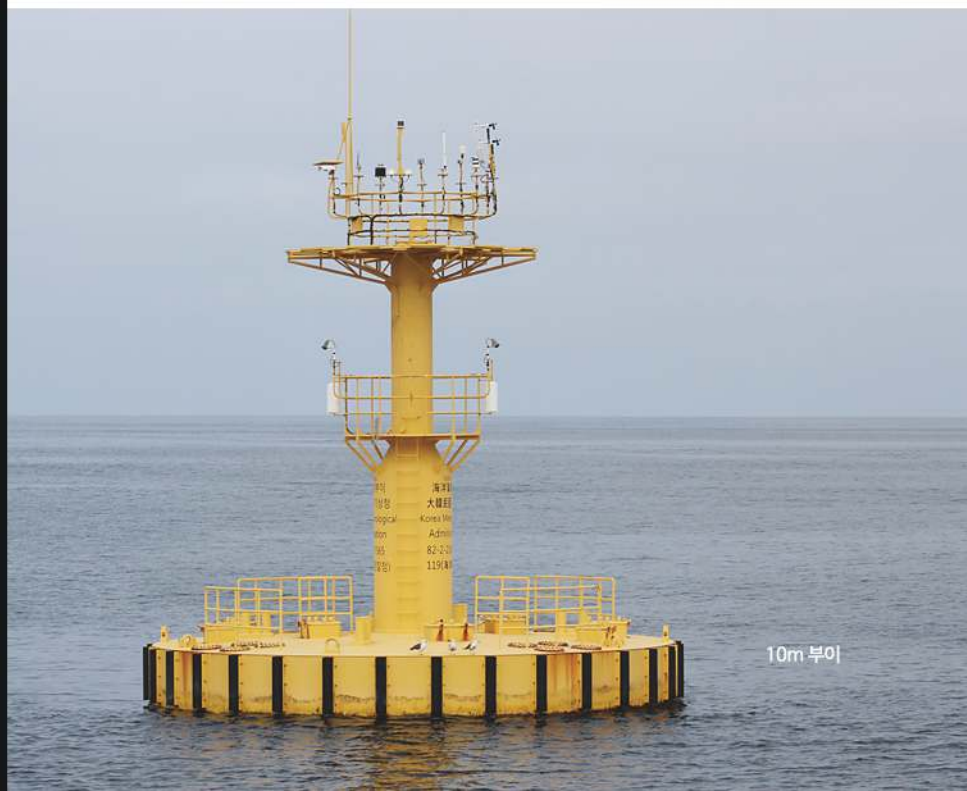
연안 부이는 파고 부이의 단점을 보완할 2m 내외의 부이로, 해면 상태 뿐만 아니라 풍향·풍속, 기온, 기압 등 해양기상부이에 버금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특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대비, 해양 생태계 연구와 해양 산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 눈에 쉽게 띄는 큰 크기로, 선박 운항이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부이들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관측장비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상변화를 예측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기상청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기상정보에 대해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각별한 주의 필요

매년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러 부분에서 변화한다.

추운 날씨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옷차림과 난방은 필수이고, 도로교통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살얼음은 도로 표면에 얇게 형성된 얼음을 의미한다. 습기가 낮은 기온과 결합하여 도로에 얇은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인데,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 그늘진 도로와 교량 구간에 잘 생성된다. 도로살얼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라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기상청은 겨울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겨울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의 79%는 12월에서 1월에 집중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3,944건의 노면 결빙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4로, 결빙이 아닌 도로에서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상청은 이렇게 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살얼음에 대응하고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인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는 정확한 관측자료에 기반을 두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기상 관측망과 도로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 도로 상태, 온도, 습도, 강수 유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특정 지역에서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을 정보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정확한 도로 기상 관측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중부내륙선에 기상관측망 노선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 서해안선 노선을 추가하였고,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충부선 5개 노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남해선과 서울양양선 등 19개 노선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는 위험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단계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낮을 때는 0단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관심(1단계), 높을 때는 주의(2단계), 매우 높을 때는 위험(3단계)으로 구분된다.

더 자세한 단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레이더 어는비와 노면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레이더 에코가 없고 건조한 지면일 때는 0단계, 노면 상태가 젖어있고 기온이 4℃ 초과할 때는 관심, 노면상태가 젖어있고 기온이 0℃를 초과하고 4℃ 이하일 때는 주의, 노면 상태가 눈이나 얼음이 있고 기온이 0℃ 이하에서는 위험으로 구분되어 표출된다.

이렇게 생산된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및 도로전광판으로 제공되어, 제설 작업이나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예방 조치가 취해지도록 돕는다. 기상청의 도로살얼음 정보 서비스는 도로 관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험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운전자들도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확인하면 도로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 속도를 준수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지키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

겨울철 안전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지니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상청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통해, 겨울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기상청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중요한 봄비 내리는 시기,
봄비로 대지와 생태계는
새 생명을 품을 준비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임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사람이 찾아오려야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기다리던 이의 인기척은 아닐까 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시조이다.

누구나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만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자연에도 마음이
있다면 봄비를 기다리는 자연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추운 겨울을
지내며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메마른 땅은 곧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이 올 것이라
믿으며, 봄비를 맞이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속담으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은 각각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이다. 봄기운에
얼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도 있다.
우수가 지나면 날씨가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돌며 초목이 싹 트다는 계절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속담이다.

이렇게 여러 속담에 담겨 있을 만큼 봄비가 내리는 시기는 중요한 때로, 봄비가
내리면 대지와 생태계는 새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한다.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채비를 하며, 겨우내 쌓인 도심의 먼지는 봄비에 씻겨 내려간다. 만약 봄비가
늦어지거나 적게 내리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고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봄비는 단순한 강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연과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줄기인 것이다.

지난해 봄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우수(雨水)가 속한 2월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겨울에서 봄 사이에 비가 적게 내리는 편이지만 작년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 35.7mm 대비 287%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역대 두 번째로 적어, 1973년 이래 처음으로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았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앞서 소개한 시조의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아직 기상현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요원하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져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뿐일까.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상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상청은 365일 24시간 날씨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 정보를 전달하고,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예보가 기후변화 시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기상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수호하고자 많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

봄비를 기다리는 일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기만 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닌 비가 언제 내릴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기상청은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봄날의 촉촉함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Pixabay



2024.12.5.

대전지방기상청 기상홍보관(기상장비전시실) 환경개선

대전지방기상청은 견학 및 진로체험 등에 활용 중인 기상홍보관의 노후화된 전시시설 및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홍보관 기상장비전시실 환경개선을 시행하였다.

「과거 기상관측장비」, 「현재 기상관측장비」 테마로 전시 시설을 분리 제작하고 위성 모형, 일사·일조계, 파고부이 등 전시물을 추가전시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콘텐츠 보완으로 대국민 기상·기후 과학에 대한 이해 및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조르단일조계

영국의 조르단(J. B. Jordan)이 1855년에 고안한 일조시간 측정 기기로 원통, 자광면, 채광구, 적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출 2분 원통 내부에 기록 용지(감광 기록지)를 넣어 태양광선이 들어와 빛을 받은 부분이 반응하여 검은 흔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일조시간이 된다.



아네로이드자기압계

벨로스(bellows)를 이용한 기압 측정 기기이다. 벨로스는 지름 63mm, 높이 70mm의 약 14개 정도 주름이 있는 황동 주름과 통으로 벨로스의 미세한 수축 팽창이 피벗에 연결된 지렛대를 통해 확대되어 기록 펜을 거쳐 화강하는 원통을 감싼 기록 용지에 스스로 기록된다.



깊은 줄 지중온도계
(일본지중온도계)
일본 지중온도계는 189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것으로,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치는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포함하며, 각각이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다. 센서들은 얇은 유리관으로 보호되며, 각각이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다. 이 장치는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깊은 줄 지중온도계
(일본지중온도계)
일본 지중온도계는 189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것으로,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치는 여러 개의 온도 센서를 포함하며, 각각이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다. 센서들은 얇은 유리관으로 보호되며, 각각이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다. 이 장치는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메탈자기온도계
바이메탈 자기온도계는 1890년대 후반에 개발된 것으로, 지중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장치는 바이메탈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바이메탈은 두 가지 다른 금속의 합금으로, 온도에 따라 휘어진다. 이 휘어짐은 기계적으로 기록 펜을 움직여 기록 용지에 기록된다.



2024.12.3.

충남 딸기연구소 기상서비스를 위한 논산 AWS 일사 · 일조 관측 개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청장과 함께 충청남도 딸기연구소에 방문하여 전국 딸기 최다 생산지인 논산지역에 딸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일사 · 일조계 설치 및 자료 활용을 논의하였으며, 논산 AWS에 일사 · 일조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관련기관 관측자료 제공을 위해 오픈API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24.12.9.

2024년 하반기 「족집게 예보관」 포상



대전지방기상청은 예보정확도 향상 및 예보역량을 강화하고 예보관 사기 진작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족집게 예보관’을 선정했다.

예·특보생산팀(4개팀)을 대상으로 반기별 예·특보 운영평가, 기상특보 발표 건수, 예보 관련 경진대회 참가 등 여러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최우수(3팀), 우수(2팀), 장려(1·4팀)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



2024.12.10.

「기후위기 대응 콘테스트」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 행동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체험교구 활용 이벤트 ‘기후위기 대응 콘테스트’를 개최 하였다.

2024년 꿈나무 과학멘토 229명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사례, 소감문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 6명에게 대전지방기상청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탄소중립 콘테스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기여하였다.



2024.12.13.

농업 부문 기후 · 감시예측 서비스 활용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농업 부문 관련기관 기후변화 및 기후 · 감시 예측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 · 감시 예측 서비스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충남 농업기술원 및 내부 직원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전 세계 · 우리나라 · 충남권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농업분야 관련 국내 기후특성 분석 및 기후변화 예측정보, 기상청 기후 · 감시 예측 서비스 활용 방법이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관련 기관 간 소통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12.16.

2024년 하반기 우수 기상관측자 선정 및 포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우수기상관측자를 선정하였다. 평가기간은 '24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관측업무에 3개월 이상 근무하며 정확한 관측자료 생산 및 현장 관측품질 향상에 기여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예보의 근간이 되는 기상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4.12.23.

「제22권 대전기상기술집」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상기술과 연구 성과를 한데 모은 대전기상기술집을 발간했다. 이번 기술집은 최신 기상예측 기법, 관측 장비 운영 사례, 충남지역 기후특성, 지역 특성에 맞춘 기상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상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상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 과학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4.12.2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을 설치해 온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나만의 크리스마스 장신구 만들기, 친환경 세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친근한 과학관 이미지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전시관람을 유도해 기상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30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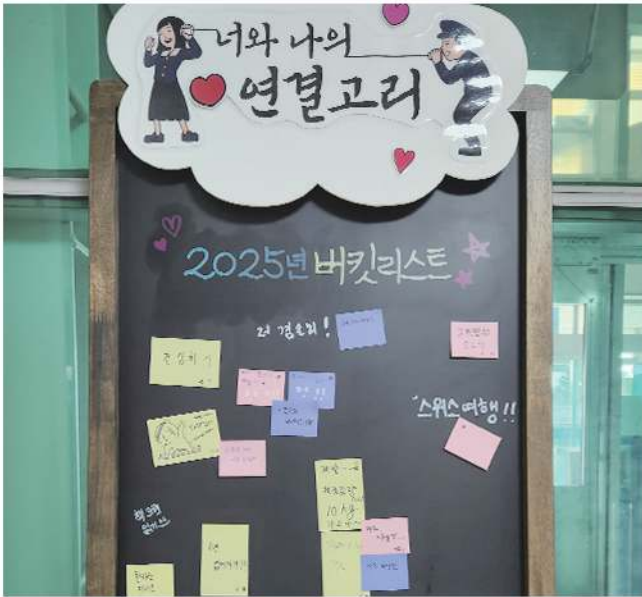
2025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5.1.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국립충남기상과학관」 명칭 변경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과학관의 본연의 역할 및 인지도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1월 1일부터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국립충남 기상과학관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변경에 따른 ‘국립충남기상 과학관의 새출발을 응원해 주세요!’란 주제로 SNS 명칭변경 댓글 이벤트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등 홍보를 통해 관람객 관심 유도과 기상과학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1.2.~12.31.

2025년 대전지방기상청 소통게시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 포스트잇 소통 게시판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매달 직원 추천을 통해 새로운 주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연간 최고 인기 주제 3건과 게시글 4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게시판이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재미있는 주제와 게시글들이 많이 게시되길 기대한다.



2025.1.7.~1.21.

설 연휴 대비 관측장비 및 관측환경 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설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8지점과 방재기상 관측 장비(AWS) 8지점의 기상관측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관측장비 상태, 관측환경, 통신·전원시설, 비상연락망 및 장애 대응체계등 을 점검하여 연휴기간 동안 기상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발생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5.1.8.~1.9.

기상관측차량 겨울철 위험기상(대설) 대응 특별관측 수행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9일 사이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겨울철 위험기상 대설 대응을 위해 고층관측 및 지상관측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겨울철 위험기상예측에 활용가능한 고층관측자료 확보와 기상감시는 물론, 관측공백 해소를 통해 예·특보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5.1.9., 1.21.

평수구역 유관기관 · 지역민 대상 현장소통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인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 분리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소통을 실시했다. 풍랑특보 분리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점검·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특보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1.9.

2025년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운영·유지관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운영·유지관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과학관의 전시해설 및 교육·홍보 등 전반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1. 10.~1.16.

외국인근로자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소통 및 점검



2025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력팀과 협력하여 천안시와 아산시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및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난방시설 및 화재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한파 영향예보 산업분야 다국어 리플릿 배부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다.



2025.1.10.~1.21.

해양사고 및 산불 대응 기상지원 사용자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3회(1.10., 1.13., 1.20.)에 걸쳐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및 산불 발생 대응 기상지원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및 산불 발생 시 보고체계와 대응 프로세서를 점검하고, 해양사고 및 산불 진화용 기상정보 입력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4.~1.23.

「2025년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방학을 맞이한 대전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을 운영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저학년과 고학년 2개 연령대로 나누어 각각 ‘바람아 넌 누구니?’, ‘구름의 일생’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여 총 77명이 참여하였다. 풍향풍속계 만들기, 진공압력장치 기압 실험, 기상캐스터 날씨 방송 등 체험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95%의 참여자가 약간 만족 이상으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기상·기후변화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1.22.

설 명절 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전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소속직원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과 위문품 (쌀, 주방세제, 물티슈, 휴지 등)을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고 찾아 위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2025.1.22.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실무협의회(7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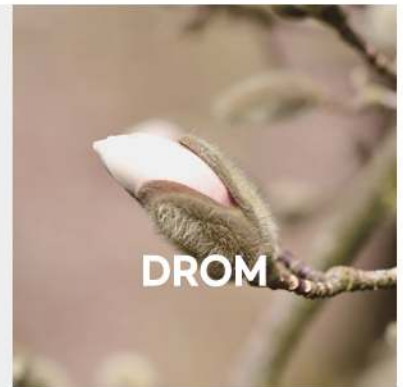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과 함께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를 구성하여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5년 지역별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주요 협업과제 및 필요사항을 논의하여 기후협의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7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권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2. 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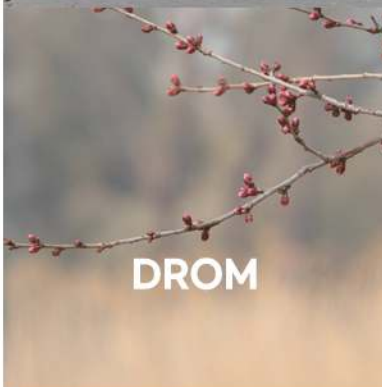
동계 야외 가족프로그램 「겨울바람 연놀이」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과학관 방문객을 위한 겨울철 야외놀이 프로그램으로 「겨울바람 연놀이」 가족어울림 프로그램을 2월 매 주말과 정월대보름에 운영하였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자전거 대여가 불가한 관계로 관내 기상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 연을 대여하여 온 가족이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 2.4.~2.6.

기상관측차량 이동형 노면센서를 활용한 겨울철 도로면 시험 관측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 새벽 사이, 과거 도로살얼음 발생 지역인 세종 금빛노을교를 관측장소로 선정하여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도로면 시험관측을 실시하였다. 실시간으로 노면온도, 습도, 결빙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이동형 노면센서를 장착하여 시험관측을 진행하였다. 이동형 노면센서로 생산된 관측자료는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겨울철 도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2.7.

「2024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보고서」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8년도부터 운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2024년도 운영 보고서에는 서해기지의 노후 전기·건축 시설 개선사항과 노후 태양광 모듈(ARRAY-3) 교체 등 환경과 전력 및 기반시설 개선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서해기지의 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정확한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2.13.

「대전·세종·충남 기후변화과학 강사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 학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후변화과학 강사 소통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작년 교육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과학 학교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5.2.14.

「2025년 제 1차 대전청 지식나눔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눈 무게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겨울 충남권 지역의 강설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지식나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눈 무게를 결정짓는 요소들의 기준값을 세우고 이번 겨울 사례에 적용시켜 정확도를 분석하고, 가이드스로 제공하기에 앞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는 본 가이드스를 예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충남권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5.2.19.~2.26.

탄력적 특보운영을 위한 예보관 대상 「해양특성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평수구역의 탄력적 특보운영을 위해 예보관을 대상으로 해양특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수구역(태안·서산 북쪽, 당진 평수구역) 분리('24.11.25.) 이후 풍랑특보 예상 시 평수구역 분리 경계선 인근 관측공백지역인 도비도항에서 실시한 기상관측차량 바람관측 자료와 인근 관측장비와의 바람비교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특보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2025
JANUARY

1월 하순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1.27. 세종 1위 9.1mm, 홍성 2위 6.7mm

1.28. 보령 2위 16.3mm, 세종 3위 5.7mm, 부여 4위 18.6mm
홍성 5위 4.3mm

1.29. 홍성 4위 4.3mm

※ 12월 극값 경신 기록 없음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2
2025
FEBRUARY

2월 상순 최대 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2. 3. 세종 1위 13.2m/s, 홍성 3위 11.5m/s
- 2. 4. 세종 3위 10.9m/s
- 2. 7. 홍성 1위 15.6m/s, 세종 2위 13.1m/s, 대전 2위 19.0m/s, 천안 4위 13.7m/s

2월 상순 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 2. 5. 홍성 3위 - 13.3℃, 세종 4위 - 10.5℃
- 2. 6. 세종 2위 - 11.3℃, 홍성 5위 - 12.9℃
- 2. 8. 세종 1위 - 11.6℃, 세종 5위 - 10.3℃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5. 2.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도(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Thank you for your affections and supports you have shown and contributed in the year of **2024**.
I do wish we all the very best for **2025**.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